완주군, 내년 예산확보 총력

중앙부처 일제출장 5월까지 수시 방문

완주군이 부처별 예산편성을 앞두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시작하였고, 부처별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시점인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방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출장은 20개 실과단소 국가예산 사업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서울청사 및 관련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고,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국도17호선 시설개량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마산천 재해예방사업, 완주보건소 신축' 등 대규모 국비사업을 비롯 완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완주군은 내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으로 총 196건을 발굴하고, 그중 2017년 중점추진 사업으로 분류한 111개 신규사업(국비 5,879억원 규모)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17년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단계별 총력 대응과 도·정치권 등과 공조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전주천 발원지 슬치물결 정비사업, 2016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등 총 21건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292) 규모의 공모사업을 확보하며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완주군은 앞으로 4~5월 부처 예산편성 단계 사업반영을 위한 부처 국·과장 담당자 사업설명에 집중하고 더불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부처별 수시 공모사업 동향 파악과 사업선정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주민들 힘으로'

진안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2016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주민 및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2008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진안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 주민 스스로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구상하며 마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며 특색 있게 변화시켜 나가는 '마을 만들기'의 첫 단계 사업이다.

올해는 진안읍 소토실마을 외 14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4월부터 7월까지 마을에 방치된 쓰레기 치우기 등 환경정비, 마을 앞 꽃밭조성, 담장벽화, 쉼터 조성 등 그 마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235개 마을이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해 추진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협동심을 도출해내 주민 화합과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 지역주민의 호응은 물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8일 2016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무주군, 하천 정비 162억원 투입

설천 원당천 등 5곳에

무주군이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올 한 해 총 사업비 162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설천면 원당천 수해 상습지개선과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안성과 적상, 무풍면 지역의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2월 정부 예산이 확정되며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된 설천면 원당천 수해 상습지는 올해만 20억 원이 투입돼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실시되며, 본격적인 개선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2016~2021, 총 사업비 294억)될 예정이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2011~2017)은 소이나무원 조성과 반딧불이 생태 학습원, 남대천 시내 권 하상 둔치 내 산책로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아울러, 안성면 외당천과 내당천, 적상면의 복숭나무골천, 무풍면 율평천 등 4개 지구에서 진행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우기 이전에 주요 구조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 안전재난과 하천담당 박은석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유지 관리는 하천의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토사 퇴적물과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장마철 이전에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서둘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의 면모를 가꿔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해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재단, 해사와 손잡다

사관생도 캠프 초청 등 상호 발전 도모 기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지난주에 해군사관학교(학교장 김판규 중장, 이하 해사)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핵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태권도를 통한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강인한 정신력, 체력 증진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주목적으로 한다. 협약식은 김성태 재단 이사장과 김판규 중장(해사 학교장) 등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은 해사생도 태권도 교육 및 수련 등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협력하기로 협의했으며,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추후 국내·외 태권도 교류 프로그램 개발의 공동연구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해사는 재단 직원 및 연수생에 대해 안보교육과 해사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로 협의하며 세부 사항은 양측 실무부서가 별도 합의하고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재단은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국가 안보의식 강화와 태권도 가치 창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해군사관학교 생도 대상 태권도원 캠프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 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군,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016년 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과 복지시설 및 단체 임직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조재훈 사무관이 강단에 서 △복지재정 및 부정수급현황과 △발생원인 및 유형, △정부의 복지부정 근절 방안과 △복지종사자의 사명감,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강의했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가 이 만큼 건강하고 이 만큼 따뜻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는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희생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 자리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사명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로 인해 무주가 더욱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수 무주군수가 직원 대상 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군이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관내 313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22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난해 1백여 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무주군 사회복지예산의 31.7%를 차지하는 130여 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플러스

진안,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가동

진안군은 지난 8일 상황실에서 기획실장 주재로 규제관련 실무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기업지원과 환경규제를 비롯한 인·허가 업무, 복합민원 처리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직원들간 긴밀한 협업체계 도모는 물론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례중심 규제개선 영상자료 시청 후 업무 추진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실무추진단은 2016년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 혁파를 위해 구성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경영 개선 교육

무주군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해 농업관련 공무원과 희망 농업인 1백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일부터 6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첫 날인 지난 8일에는 한국농업경영포럼 성진근 이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농업농촌 환경변화와 농가경영개선 지원방향"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오는 29일은 농협전북지역본부 김영일 단장이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와 품목조직화 전략"에 대해, 농촌여성신문 신재호 기자가 "농산물시장 메카니즘 시장을 알면 돈이 보인다"를 강의할 예정이며, 5월 13일에는 농정보기술연구소 성형주 소장이 "정(情)·통(通)·농(農) 정보가 통하면 농업이 바뀐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5월 27일에는 두드림센터 이계선 대표가 "농업인의 웃음, 대한민국을 버전업(UP)하라"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마지막 날인 6월 10일에는 한국스토리텔링발전포럼 김유석 대표가 "21세기 대중적 트렌드와 인문적 통찰력을 고려한 지역 농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건재 정인승 추모제 거행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健齋) 정인승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30주기 추모제가 10일 장수군 계북면 정인승기념관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오재만 군의회의장, 유족, 유도회원, 지역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제는 최용득 군수의 초헌례에 이어 오재만 군의회 의장의 아헌례, 유학 이현두씨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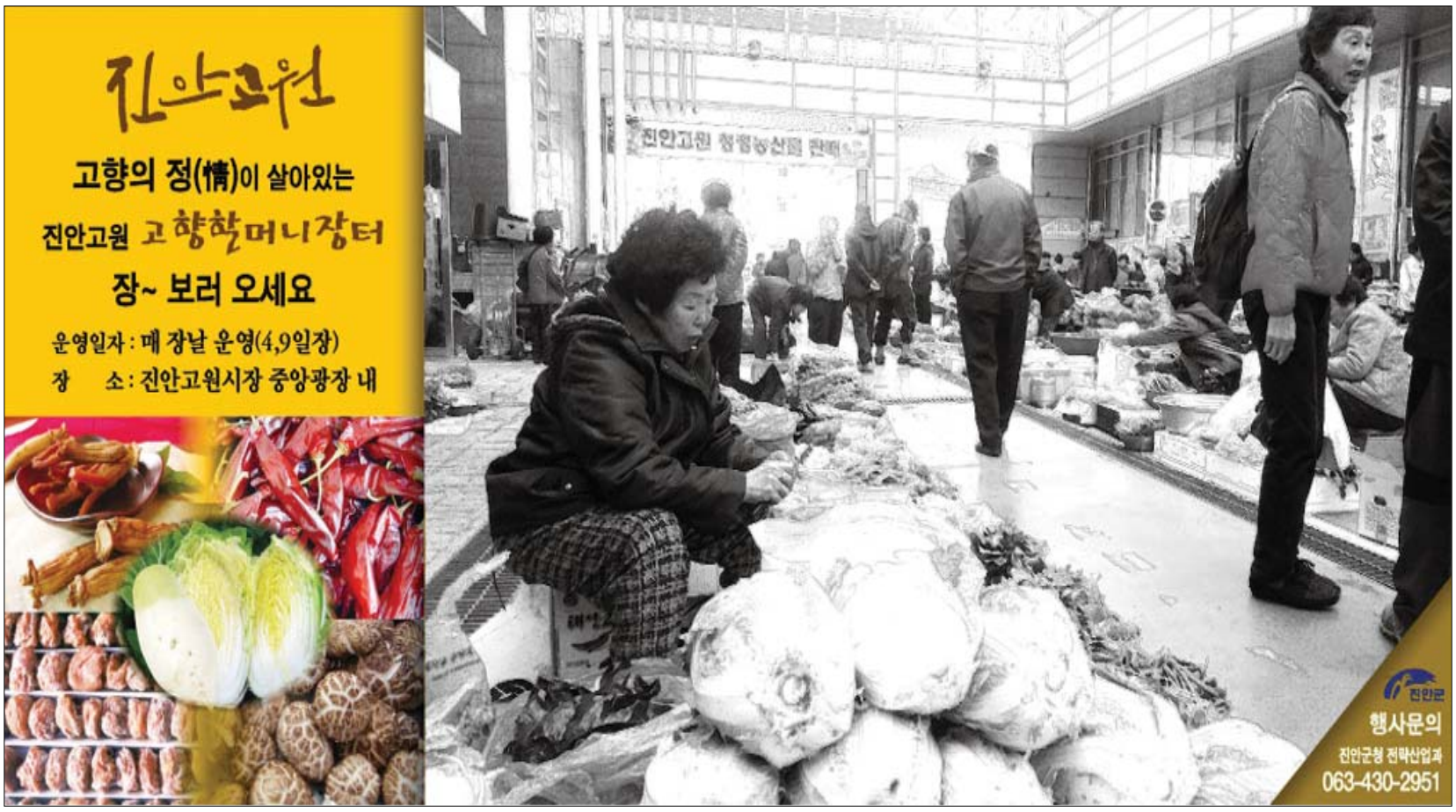
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5월 19일에 태어나 조선어학회에서 사전편찬회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정음사 한글독본, 어문각표준중등말본, 표준문법을 편찬하고 한글 맞춤법통일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건국공로훈장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장수=고판호기자

장수경찰, 마트 영수증에 교통사고 예방 문구 삽입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7일 교통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대형마트 영수증에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밝혔다.

대형 판매시설인 무진장축협 하나로 마트의 협조로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사고예방 정보를 기재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착안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음주운전 근절 등으로 문구는 해당 시기 및 특색에 맞게 교체할 예정이다.

윤중섭 서장은 "군민들이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수군민들의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